

# 朴光前의 擧義와 그 一家의 의병운동

趙 潏 來\*

## 目 次

- I. 머리말
- II. 박광전의 擧義와 全羅左義兵의 성군
- III. 전라좌의병의 활동과 朴光前 一家의 動向
  - 1. 전라좌의병의 활동과 전과
  - 2. 처남 文緯世의 활약과 竹川의 丁酉再倡
- IV. 丙子倡義와 朴氏一門의 의병운동
- V. 맺음말

## I. 머리말

임진왜란중 의병운동을 주도한 계층은 전직관료와 재야의 유생층이었다. 관군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현직관인들이 의병지휘부에 참여한 예도 있긴 하였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역시 유생층을 중심으로 한 재야 지식계층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의병부대의 결성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한 사람의 의병대장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병력동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대체로 각 고을 단위의 의병지도자가 주동이 되어 수십에서 수백에 이르는 병력을 확보한 다음, 여러 고을의 군사들이 합세하여 의병대장을 추대하고 의병조직을 갖추간 것이 일반적인 예였다.

이 글에서 보게 될 박광전과 전라좌의병의 성군 역시 위와 같은 유형의 전형적인 임란의병의 한 예라 하겠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박광전은 67세의 노령에 신병까지 겹친 전직관인이었다. 송천 양응정과 퇴계

\*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항의 문인이었던 그는 일찍이 왕세자 광해군의 師傅를 지낸 유학자로서 당시 도내에서도 명망 높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임진년 7월 10일, 고경명 휘하의 호남의병이 금산성전투에서 패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직후, 임계영·문위세·김익복 등과 함께 또 다른 창의기병을 모색한 것이 바로 전라좌의병의 성군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죽천 박광전의 擧義와 관련하여 전라좌의병의 성군배경을 먼저 살펴본 다음, 영남지방에 진군하여 勤王義兵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전라좌의병의 전과에 대하여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全羅左義兵陣의 糧餉官과 참모관의 중책을 맡은 죽천의 처남 문위세와 장남 박근효를 중심으로 한 親戚一家의 활동상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 보려고 한다. 아울러 박광전의 丁酉再倡과 의병운동의 성격, 그의 의병이념을 이어 병자호란시에 다시 倡義起兵에 나선 박씨일문의 의병운동 사례에 관해서도 언급하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진왜란을 통하여 박광전과 그 일가에서 펼친 의병운동과 그것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가 드러날 것을 기대한다. 즉 의병활동의 직접적인 전과나 전공에 대한 결과 분석의 문제를 떠나, 의병운동의 繼起性 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 박광전의 擧義와 全羅左義兵의 성군

임진왜란시 초기 호남의병의 활동은 金千鑑이 주도한 나주의병과 高敬命을 맹주로 하여 結集한 담양의병의 봉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고경명과 김천일은 도내에 알려진 중망있는 명사들로서 그들이 의병활동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하였으나, 그 시기와 방법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으로써 그들의 의병활동 역시 각기 분리되고 말았다. 따라서 먼저 起兵한 나주의병은 급히 북상하여 도성에 가까운 경기도 일원에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담양의병은 전자에 비하여 擧兵이 늦어

지긴 하였으나 6천여 대군을 모아 뒤늦게 북상중 錦山城에서 왜병과 접전하였다. 그 후 임진년 7월 10일, 제1차 금산성싸움의 패전으로 하여 고경명 휘하의 의병은 지도층의 핵심인물들을 잃고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담양의병은 전자에 비하여 擧兵이 늦어지긴 하였으나 6천여 대군을 모아 뒤늦게 북상중 錦山城에서 왜병과 접전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내에 自衛를 감당할만한 군사조차 없게 되자 위양군의 뒤를 잇는 全羅左·右義兵이 다시 봉기하였다. 寶城官門에서 의병의 기치를 세운 전라좌의병과 화순에서 일어난 전라우의병이 바로 그것이다.<sup>1)</sup> 전라우의병의 주역들은 고경명 휘하의 潭陽義陣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많았다. 이들은 제1차 금산성전투 이후 흩어진 군사들을 다시 규합하여 재기의 기치를 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전라우의병의 기병지는 광주였지만 실질적인 擧義 기반은 화순과 능주지역이었고, 倡義起兵의 주역들 역시 이 지역출신의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특히 그 핵심인물이었던 능주출신 進士 文弘獻은 同鄉人 具喜·朴赫起·盧希尙 등과 더불어 향병 3백 여명을 모아 일찍이 潭陽會盟에 참여, 고경명과 함께 의병을 이끌고 금산성까지 진군하였다. 당시 문홍헌은 고경명의 요청에 따라 募粟官의 임무를 띠고 열읍을 돌면서 모랑활동을 펼치다가 미처 還陣하지 못한 채 금산패보에 접하게 되었다. 그 뒤 再擧할 것을 결심한 그가 화순의 최경회를 맹주로 추대하여 화순·능주지역을 중심으로 병력 8백여명을 모집, 7월 26일 광주에서 기병하여 ‘鵠’字로 장표를 삼아 ‘全羅右義兵’이라 하였다.

전라우의병이 거병시 갖춘 의병조직에 대하여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

1) 전라좌·우의병이란 全羅左道와 全羅右道에서 일어난 의병이란 뜻이다. 당시 전라도의 행정구역이 법제적으로 좌도·우도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좌우로 나누어 부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주가 전라우도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담양이 좌도지역에 속해 있었다는 점에서 나주의병을 ‘全羅右道義兵’, 담양에서 결성된 의병을 ‘全羅左道義兵’이라 칭한 것이다. (『난중잡록』 임진 5월 26일 기사 참조)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全羅左·右義兵’의 호칭 역시 기병지 또는 募地의 지리적 위치에 의해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으나 담양·순창·남원 등지를 거치면서 병세가 보장되는 과정에서 前部將에 宋大昌, 後部將에 許鎰, 左部將에 高得賚, 右部將에 權克平, 參謀官에 文弘獻 등을 임명하여 조직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전라우의병장에 추대된 최경희는 문과출신에 환갑을 맞은 노령에도 불구하고 武才가 있어 군사활동을 수행할만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따라서 의병장으로 활약하던 중 훗날 그에게 경상우병사가 除授된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한편 전라좌의병은 고경명군의 錦山敗報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성군한 예였다. 우선 그 대체적인 성군과정을 보면, 보성의 朴光前·任啓英, 장흥의 文緯世, 능성의 金益福 등 全羅左道の 남부지역 사림이 주축을 이룬 가운데 임진년 7월 20일, 7백여명의 군사를 모아 보성 관문에서 의병의 기치를 세우게 된다. 임계영을 좌의병장으로 추대하고 문위세를 糧餉官, 朴根孝를 參謀官, 鄭思悌를 종사관으로 하는 기본적인 부서조직을 갖추고 ‘虎’자로 章標를 삼아 ‘전라좌의병’이라 칭하였다. 그 후 보성에서 출발하여 낙안·순천·구례·남원에 이르기까지 左道列邑을 돌며 군세를 더한 뒤 전라우의병과 함께 掎角之勢를 이루어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위에서 본 것은 임진년 7월에 전라좌·우의병이 붕기하게 된 배경과 대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알아본 것이다. 이제 전라좌의병의 성군과 박광전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박광전은 1526년(중종 21) 현재의 보성군 조성면 용진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顯哉, 호는 竹川, 본관은 珍原이다. 直提學 熙中의 玄孫이며 進士 而誼의 아들이었던 그는 9세 때에 興陽에 유배와 있던 洪暹에게 글을 배운 뒤 22세 때에는 松川 梁應鼎에게 수학하면서 그의 문인이 되었다. 그 후 41세가 되던 해 退溪 李滉의 문하에 들어가 본격적인 성리학을 익히면서 그로부터 큰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1568년(선조 1) 진사시에 합격한 다음, 眉岩 柳希春이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그의 추천으로 慶基殿 참봉이 除授되었고 이어서 獻陵參奉을 지낸 뒤 관직을 떠나 귀향하였

다. 그 후 氷庫別坐에 다시 기용되었다가 1581년(선조 14) 광해군의 潛邸時 王子師傅을 지낸 뒤 司憲府 監察·咸悅縣監·懷德縣監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처남 文緯世와 문인 安邦俊·鄭思悌 그리고 前縣監 任啓英과 더불어 도내 열읍에 傳檄, 의병을 모집한 후 寶城官門에서 전라좌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전라좌의병의 봉기를 주도한 박광전과 임계영은 도내에서도 명망이 높은 인물들이었다. 박광전에 대하여는 거듭 설명할 필요가 없거니와, 임계영 역시 일찍이 문과에 급제한 후 珍寶縣監을 지낸 전직관리로서 그 이름 또한 도내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런데 박광전의 경우에 전라좌의병의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 年齒가 가장 위였을 뿐 아니라 학문과 경륜에 있어서도 의병군의 맹주가 되어야 할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 67세의 노령에 신병까지 겹쳐 있어 직접 군사를 지휘할 수 없었으므로 임계영을 의병대장으로 추천하여 전라좌의병의 지휘권을 맡게 하였다. 그리고 장남 根孝·처남 문위세·문인 鄭思悌를 주축으로 하여 탄탄한 의병조직을 갖추게 하는 한편, 문인 안방준을 兩湖都體察使 鄭徹의 군중에 파견하여 연락참모의 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조정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케 하였다. 특히 전라좌의병의 성군과정에서 주목되는 중요한 사실은 죽천 박광전과 楓菴 문위세 一家와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장흥출신의 대표적인 의병지도자였던 문위세와 죽천의 사이는 자부·처남의 관계이자 사제지간이었으니 이들의 결합이야말로 전라좌의병의 군세를 키우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문위세의 영향이 전라좌의병진 중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어떠하였는가를 기능해볼 필요가 있겠다.

『湖南節義錄』에 등재된 「全羅左義兵將同倡諸公」, 즉 전라좌의병의 지도층 인사들은 모두 21명으로 나타나 있다.<sup>2)</sup> 출신지역별로 보면 장흥이

2) 21명의 명단과 출신지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호남절의록』 권2, 「左義兵將任公同倡諸公事實」)

10명, 보성이 9명, 강진·홍양이 각각 1명인데 장흥출신 10명 가운데 남평문씨 집안사람들이 6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위세의 사위 白民秀를 포함해보면 7명으로서 전체 성원의 1/3에 이르고 있다. 문위세를 주축으로 한 남평문씨 일가의 부자·형제 및 조카·사위가 모두 함께 同倡成員이었으니, 이것은 결국 박광전과 문위세의 인맥이 가져온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라좌의병이 성군함에 있어서 죽천과 풍암, 姊夫·처남의 역할이 그 만큼 컸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박광전·임계영·문위세 등 보성 장흥지역의 사람을 주축으로 결성된 전라좌의병의 지도층 인사들은 임진년 7월 20일로 예정된 보성 출진에 앞서 도내 열읍에 격문을 띄워 의병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의 舉義理念和 의병활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격문의 일부를 살펴보기로 하자.

나라가 믿고 걱정이 없던 것은 三道가 건재하기 때문이었는데 경상도와 충청도는 이미 무너져 적의 소굴이 되었고 유독 전라도만이 겨우 보전하여 군량수송과 군사정발이 모두 이곳에 의지하고 있으니 나라를 다시 일으킬 기틀이 실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이 급박하다 하여 관찰사는 정병을 거느리고 海路를 따라 올라갈 계획을 하고 있고, 兵使는 또 수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이미 금강을 넘었으며, 두 의병장의 군사도 역시 각기 勤王을 위하여 이미 본도를 떠났으므로 列邑의 장정들 또한 장차 모두 출정케 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도내에는 남은 군사가 거의 없어 적이 들어오는 중요한 길목의 방비가 극히 허술하며, 호서의 적이 이미 본도의 경계선을 범하였으니 머지않아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 형세가 눈앞에 닥쳤는데 이를 극복할 희망이 무엇인가. (중략) 우리들은 본시 활쏘고 말달리는 재주가

---

임계영(보성), 문위세(장흥), 박근효(보성), 任濟(보성), 鄭思愷(보성), 蘇尙眞(보성), 文元凱(장흥), 文英凱(장흥), 白民秀(장흥), 文亨凱(장흥), 文弘凱(장흥), 文希凱(장흥), 任永凱(장흥), 廉世慶(보성), 梁幹(장흥), 南應吉(장흥), 李忠良(강진), 金弘業(보성), 宣慶龍(보성), 金彦立(보성), 黃九器(홍양). 그런데 여기에 朴光前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竹川朴公同倡諸公」으로 5명이 따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없고 병법도 알지 못하니 군사를 지휘하여 적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오직 他에 앞서 의병을 일으킨 까닭은, 한편으로는 忠義之士의 뜻을 격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용사의 기운을 북돋자는 바이니 인간의 양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반드시 興起하는 바가 있을 것이로다.<sup>3)</sup>

앞 부분은 임진년 7월, 호남지방의 軍情實態에 아울러 전라좌의병의 擧義目標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의병지도층이 밝힌 것은 도내가 텅빈 실정에서 국가의 中興基地인 호남지방의 自衛를 목표로 거병하였다는 점이다. 뒷 부분은 의병의 擧義理念에 관한 내용으로, 평소 군사활동에 미숙한 선비 유생층이 의병운동에 앞장선 목적이 관군과 일반백성들에게 극난극복의 의지를 감발시키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다. 즉 평소에 같고 닦은 학문정신을 倭寇을 당한 현실에서 그들이 직접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 III. 전라좌의병의 활동과 竹川一家의 역할

#### 1. 전라좌의병의 활동과 전과

1592년 7월 20일 보성의 관문에서 출진한 전라좌의병이 낙안·순천·구례를 거쳐 남원에 이르면서 군세를 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히 의병진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참모진을 보강한 일이었다. 처음 보성에 집결하였을 때 상황은 박광전·임계영 휘하의 보성군사, 문위세 휘하의 장흥군사, 김익복 휘하의 능성군사가 뒤섞여 일사분란한 조직체계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오합지졸의 형태를 면치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장흥의 의병지도자 문위세 휘하에는 강진 출신의 李忠良이 副將으로 활동하였고, 김익복의 부장으로는 兪汝琿이 있었지만 주장인 임계영 밑에는 사실상 3군을 통솔하면서 의병장을 보필

3) 『난중잡록』 권1, 임진 7월 기사.

할만한 將才가 없었다. 그러던 중 순천에 이르러 前萬戶 張潤이 본진에 합류해오에 따라 사정은 달라졌다. 당시 41세의 젊은 나이에 순천 守城將을 자원, 읍성을 지키고 있던 그는 무과출신으로서 군사에 밝았을 뿐 아니라 충의와 勇力을 겸비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竹川の 처남인 문위세의 「倡義日記」에 의하면 순천에서 장운을 副將으로 삼고 군사를 재정비한 다음 남원을 향해 진군한 것이 임진년 8월 9일이었다. 이 때 병력이 늘어나면서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은 군량을 확보하는 문제였으니 순천을 떠나면서 열읍에 낸 격문에서 전라좌의 병은 이렇게 호소하였다.

지금 군사를 이끌어 적이 있는 곳으로 가서 崔慶會軍과 협력할 준비가 급한데 군사를 먹일 양식이 없어 낭패이다. (중략) 여러분이 비록 질병이나 사고로 의병에 참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군량을 도와주는 것만은 힘써줄 수 있을 것이다. 모름지기 軍中에 풍우를 무릅쓰는 고생을 바꾸어 생각하고 흉한 적이 분탕질하는 화를 생각하여 각기 분발하고 격려하여 마음과 힘을 다해 양식을 보내 도와줌으로써 우리 의병으로 하여금 왜적을 무찔러 마침내 勤王의 뜻을 다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바라노라.<sup>4)</sup>

즉 군사가 있어도 군량이 없으면 의병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국난을 당한 백성이라면 직접 왜적토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의병의 군량공급에 솔선하거나 둘 중 하나의 역할분담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국가가 직접 운용하는 관군과는 달리 의병의 경우, 군사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자체적인 군량공급의 여부에 있다는 사실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당시 전라좌의병의 군사활동의 성패를 가늠함에 있어서, 糧餉官으로 직접 군량조달의 임무를 맡고 있던 문위세와 참모관 박근효·종사관 정사제 등 죽천의 집안사람들 및 그 문인들의 책임이 더없이 컸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전

4) 『난중잡록』 권2, 임진 8월, 「左義將任啓英·移檄列邑」



라좌의병이 남원에 진치고 있을 때 부사 尹安性으로부터 상당한 군량과 병력을 지원받게 되면서<sup>5)</sup> 이후의 의병활동에 작지 않은 활력소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라좌의병의 討賊活動이 본격화한 것은 8월 중순, 최경회 휘하 전라우의병의 군사와 함께 남원에 당도한 직후부터의 일이었다. 곧바로 양군은 남원에서 長水로 移軍하여 군사활동을 개시하였고, 약 1개월 후 다시 남원에 되돌오기까지, 이곳을 의병활동의 거점으로 하여 무주·진안·장수·금산간을 왕래하며 적병과의 접전을 계속하였다.<sup>6)</sup> 이 지역은 幽谷의 要害處였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적군의 소굴이 되어 있어 원활한 작전을 펴기가 어려웠던 곳이다. 더욱이 양군의 병력 규모가 각각 1천을 넘기면서 군량해결의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었으니 이것은 앞에서 본대로이다. 이 무렵 전라우의병이 군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작전지역에서 공출을 強制하다가 불만을 산 것은<sup>7)</sup> 그에 대한 부작용의 한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양군은 미비한 여건을 극복해가면서 불리한 전투를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의 전법이란, 대체로 主陣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되 훈련된 소수의 병력을 수시로 운용하여 주로 기습에 의한 유격전술을 펴 전과를 거두고 있었다.<sup>8)</sup> 그 예로서 무주·금산일원에서

5) 위의 책, 임진 10월 10일, 「전라좌의병장 임계영상소」

6) 『瑣尾錄』상 임진 8월 23일 - 9월 21일, 『난중잡록』 임진 9월 22일.

7) 위의 책, 임진 8월 초6일 기사에 “右義將崔也 不計殘縣支供之難能 而發怒減帖 不食官供 少不如意 屢加嚴杖 下吏閔苦 殆不堪支云云”라 한 것이 그것이다.

8) 작전지역이 주로 險阻한 산간지역이었다는 점에서도 소규모 전투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동성이 원활한 소수의 병력이 운용되었으니, “義兵副將高得賚 領兵四十餘 來駐于此”(『쇄미록』상, 임진 9월 초3일)라 한 것이나, “義兵三十餘人 先爲追逐 移時接戰”(같은 책, 9월 초9일)이라 한 것들로서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는 자연이 기습 혹은 매복전이 효과적이었으니, “各抄自募精銳百餘人 入透賊境 日日探候動止 或設伏要害 五度交戰 雖未多斬 而中箭日斃者無數 一不見敗賊亦畏怯”(같은 책, 9월 21일)이라 하여 주로 乘夜奇襲이나 매복전에 의해 전과를 거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차에 걸쳐 전승을 올린 바 있었던 전라우의병의 경우에 산곡간의 지형 지세를 작전에 활용, 매복을 통한 기습공격으로 왜병을 참획한 예가 많았다. 또한 야간에 벗짚단을 병사로 위장하여 적의 矢丸을 무수히 허비케 하는 疑兵術을 구사하기도 하고, 지형에 따라 장사진·어관진 등 다양한 진법을 구사하기도 하여 왜군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었던 것이다.<sup>9)</sup>

한편 이 지역은 경상도로 통하는 요충지대로서 영남지방의 왜군이 開寧·金山·知禮로 통하거나 거창을 경유하여 침략과 퇴병을 되풀이 한 곳이었다. 특히 8월에 있는 제2차 금산전투 이후 적은 금산성으로부터 성주·개령방면으로 철수하였으며, 무주일원의 적병 역시 같은 방향으로 퇴군하게 되었다. 이것은 또 가까운 梨峙·熊峙戰에서 그들이 입은 전력 손상에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전라좌우의병이 그 일대에서 집요하게 펼친 의병항전의 영향도 작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1592년 9월의 戰勢로 볼 때 금산 무주지역의 적세는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상도 지역의 왜군은 더욱 치성해갔다. 이렇게 되자 전라좌·우의병은 경상우도 관찰사 김성일과 영남의병장 金昞으로부터 경상도 來援을 요청 받게 된다. 이 때 의병진의 일부에서는 “지금 적세가 사방에 뻗혀 있는데 어찌 호남을 버리고 멀리 있는 영남을 구원하겠는가?”라고 하여 嶺南赴援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호남도 우리 땅이요 영남도 우리 땅인데, 의병이 되어 어찌 원군을 헤아려 영남을 구원하지 않겠는가”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영남출병을 결의하였다. 양군이 남원으로 부터 운봉·함양을 거쳐 산음·단성지역으로 향하였으니 이 때가 10월초의 일이었다.<sup>10)</sup>

이렇게 하여 전라우의병은 10월초 嶺右地方에 진군하여 제1차 진주성 전투의 外援으로 참전하였으며, 전라좌의병의 경우 진주성전투에는 참전하지 않았으나 곧바로 거창지역에 주둔하여 失地恢復을 위한 총력전을 서두르고 있었다. 전라도의 양군이 영남지방에 진군한 이후 10월 중순부

9) 崔慶會, 『日休堂實紀』 「倡義敘錄」

10) 『난중잡록』 권2, 임진 10월 2일.

터 이듬해 2월까지 총력을 다한 主攻戰線은 성주·개령지역의 수복전투였다. 영남의병장 김 면·정인홍의 군사와 합세하여 성주와 개령지역을 오르내리며 거듭 공격전을 펼친 끝에, 계사년 2월 마침내 그 지역을 수복하는 큰 전공을 세우게 된다. 성주·개령일대는 桂元綱과 毛利輝元 휘하의 왜군 주력부대가 일찍부터 웅거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제2차 금산성 전투 이후 양호지방으로부터 퇴군한 군사까지 가세되어 더욱 강력한 군세를 떨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전라좌·우의병이 來援하여 영남의병의 사기를 북돋아줌으로써 그들에게 실지회복의 의지를 심어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영남의병장 정인홍이 嶺右一圓에 돌린 아래와 같은 통문을 통해서도 그 점을 알 수 있다.

인홍 등은 어리석게도 격동된 바 충동만으로 스스로의 힘을 헤아리지 못한 채 창의모병으로 회복을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킨지 반년에 겨우 한 구역만을 지켜 아직도 영남에 유둔한 적을 능히 토멸하지 못하였으니 그 비분전고함에 마음이 타드는 듯하다. 이제 임계영과 최경회 양군이, 적을 치는데는 처음부터 피차가 따로 없다하고 정병 수천을 인솔해와 영남에 주둔하여 인홍 등과 더불어 성주 개령의 적을 공격하고자 하니 그 열렬한 의기는 보고 듣는 이들을 감동시키고 있으며 이는 실로 이 나라를 도와 강토가 회복되려는 징조이다.<sup>11)</sup>

위의 통문 내용과 같이 전라좌·우의병은 영남의병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개령과 성주성 수복전투에 참전하였다. 1592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주로 좌·우의병과 김 면군이 연합하여 개령공격전을 전개하였고, 11월 초 거창으로부터 합천 해인사로 진지를 옮긴 다음부터 이 달 중순 이후에는 좌·우의병이 분리되었다. 우의병은 김 면군과 함께 개령에서, 좌의병은 정인홍군과 더불어 성주에서 적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11월 중순부터 그침 없이 계속된 성주성전투에서 적장 村上景親이 중상을 당하면서부터 그 사기가 꺾여 전의를 잃고 있었다. 이 때 전라

11) 위의 책, 임진 10월 기사.

좌의병은 정인홍군 및 그 밖의 관군과 함께 공격일시를 약속하여 총공세를 펴기로 하였으나, 정인홍군 등 영남의 군사가 모두 약속을 어겨 참전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라좌의병 독립으로 공격전을 감행한 결과 적을 대파하는 커다란 전과를 올렸다.<sup>12)</sup> 이 전투 이후 적장 桂元綱은 잔여병을 이끌고 성주성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개령공격전에서도 역시 전라도의병이 毛利輝元軍 2백 여명을 살락하고 조선인 포로 4백 여명을 구해냄으로써 막대한 타격을 입은 그들 또한 그곳에서 철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오랫동안 왜군의 거점이 되어 있었던 성주·개령일대가 전라도의병의 용전에 의해 수복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전라좌·우의병의 활동으로 영남지방이 의지한 바는 매우 컸다. 따라서 당시 영남지방의 사림이 전라좌·우의병의 전과를 평가한 다음과 같은 글이 주목된다.

의병장 정인홍과 김면의 군사가 감히 홀로 당하지 못하여 전라좌·우의병에게 구원을 청함에 두 의병장이 군사를 이끌고 거창·합천 등지에 달려와서 거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개월 동안 혹은 산성에 둔쳐서 진주의 적을 쫓는 데 협력하였고, 혹은 요로를 지키면서 성주·개령을 나누어 공격하며 날마다 싸우지 않은 적이 없었고, 달마다 이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적이 움직이지 못하여 영남의 6·7개읍이 온전히 살게 되었으니, 두 군사 공이 이것으로 보아도 큰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 12)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사료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任啓英大破倭人於星州 初任啓英崔慶會與星州開寧賊 累戰不克…啓英進至星州城下挑戰 賊出精騎邀擊 義兵射倒先導數騎 除兵驚走入城 倭將墮壕重傷 賊衆恐動 義兵聞之氣倍 啓英遂與鄭仁弘 及官軍諸將 刻期約戰十四庚午 啓英如期出兵 而仁弘等皆負約不至 賊背城出陣 啓英獨以其兵戰 副將張潤先等突馳 戰久馬疲 遂捨馬步鬪 勇氣愈勳 日暮賊兵大散 積星如丘 流血遍野”(『官廟中興誌』 권3 23쪽, 규장각도서 한국본 15213 - 3)
- 13) “義將鄭仁弘金昞之兵 不敢獨當 竭誠衰號 救援於兩義兵 兩將提兵 馳入居昌陝川等邑 自上年至於今 數月之間 或屯山城 助逐晉州之賊 或守要路 分攻星州開寧 無日不戰 無月不捷 故賊不敢動 嶺南六七邑 賴以安堵 兩將之功 於是爲大”(『난중잡록』 권2, 기사 정월)

따라서 한 때 정부의 명에 따라 전라좌·우의병이 영남지방에서 철병하게 될 상황에 이르자 이를 반대하는 선비들의 상소는 매우 완강하였다. 경상우도 관찰사 김성일 역시, 전라도의병이 철수하게 되면 결국 영남지방이 적에게 먹히고 말 것임을 지적하여 그대로 현지에 머물게 해줄 것을 간청함으로써 철병을 중지시켰던 것이다.<sup>14)</sup> 당초에 조정으로부터 철병령이 있었던 것도 전라좌·우의병의 활약이 뛰어나 勤王軍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으니, 그 만큼 그들의 명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때 전라도의병이 영남지방에서 철수하리란 소문이 있었을 때 그 지방 사람들 가운데 집을 버리고 숨는 자들이 잇달았으며, 老幼할 것 없이 사망으로 흩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sup>16)</sup> 영남지방의 방어에서 그들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그들이 영남지방에 출병한 후 성주·개령수복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작전기간이 추운 겨울 철이었기 때문에 水雨中에 매복하고 霜雪間에 전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만연하여 희생자가 속출하였으며, 전쟁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군사들 중에 도망자가 속출하는 등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sup>17)</sup> 그러나 끝까지 군사를 되돌리지 않고 4개월간에 걸친 불퇴의 공격 끝에 성주·개령지역을 회복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상도에 주둔한 왜군의 주력부대를 격퇴함으로써 오랜동안 적의 소굴이 되어온 이 지역을 수복하였으니, 이후 영남지방에서의 전세를 크게 바꿔놓았던 것이다.

14) “慶尙右巡察使啓曰…朝議欲招兩義將勤王云云 兩將聞奇 不遑啓處 卽欲上去矣 本道陷沒之餘 僅存者五六殘邑 凶賊四面充斥 必欲吞滅乃已…朝廷十分參적 許留兩將于本道 以固保障 詮次喜啓云云 體察使亦枚舉馳啓 朝廷停招兩義將.”(위와 같음)

15) “備邊使啓曰 各道義兵之中 郭再祐崔慶會任啓英所率之軍 以有可觀 此三人 方在慶尙道 令急急整率勤王.”(『선조실록』 권36, 26년 3월 갑술)

16) “嶺南數邑之民 聞兩將之去 撤家藏人岩穴者相繼 携老幼四方者相望 潰散之勢已城.”(『난중잡록』 권2, 기사 정월)

17) “自去年秋冬之間 兩軍深入嶺南賊藪 埋伏於凍雨之中 暴露於霜雪之地 躬冒矢石死腹生者數矣 自此之後 厲疫熾蔓 死亡連仍 諸軍不堪防戍之苦 逃亡者過半 留陣者疲困.”(위와 같음)

## 2. 처남 文緯世의 활약과 竹川의 丁酉再倡

전라좌의병이 영남지방에서 크게 위세를 떨치기까지 박광전 일가의 동향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全羅左義兵陣의 참모관이었던 竹川의 장자 朴根孝에 관하여는 기록이 없어 그 구체적인 활동상을 밝힐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죽천의 처남이면서 糧餉官으로 활약했던 文緯世의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그의 문집으로 남아있는 『풍암실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sup>18)</sup>

조정이 문위세를 湖南運糧官으로 삼아 전라좌도 연해지역 여러 고을의 倉穀을 慶尙右道 諸邑으로 옮기게 하고, 또 山海間 諸倉穀을 서울로 실어 옮기게 함과 동시에 그 고을 군사들을 모두 전라도순찰사 權傑陣中에 소속케 하니 그의 처남 英凱를 포함한 세 아들 및 부장 李忠良 등이 모두 권을 휘하에 들어갔다.<sup>19)</sup>

위의 기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료를 찾아볼 수는 없다. 다만 권율의 『晚翠堂實紀』에 의하면 문위세가 공을 세움으로써 그가 조정에 보고하여 현감이 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이것을 토대로 위의 기사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1593년 2월

18) 『풍암문선생실기』가 처음 나온 것은 1819년(순조 19)의 일인데, 이 때는 『풍암문선생유집』(서문은 정조때 호조참판을 지낸 李獻慶이 撰한 것)이란 이름으로 1권이 간행된 것이었다. 그 뒤 1871년(고종 8)에 「임진창의일기」와 「연보」를 추가하여 重刊하였으니, 「임진창의일기」는 풍암공의 副將이었던 主簿 李忠良이 작성한 것으로서 해남에 거주하고 있던 그의 7세손 李敏誠이 소장해온 것이었고, 「연보」는 풍암공의 5세손인 진사 문덕형의 家牒에 수록된 것을 취한 것이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1988년에 江城書院에서 6권의 『풍암문선생실기』(이하 『풍암실기』로 略記함)를 다시 간행하였으니 그 내용을 보면, 권1은 「연보」, 권2는 「시문」, 권3은 「임진창의일기」, 권4는 「도산문답」·「행장」의 기타, 권5는 「신도비명」의 기타, 그리고 권6은 부록, 기타로 되어 있다. 최근 1995년에는 楓菴先生遺稿發刊委員會에서 국역으로 『풍암선생유고』 1권을 간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 『풍암실기』 권3, 「임진창의일기」 1593년 1월 17일.

20) 『晚翠堂實紀』 「附壬亂參佐諸公」의 文緯世條에 「字叔章南平人號楓菴 以功公啓聞

이후 문위세는 영남지방에 주둔한 전라좌의병의 진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라도 열읍을 돌며 군량모집에 진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호남지방에서 모은 곡식을 영남지방으로 수송하여 의병의 군량을 공급하는 한편, 행주산성전투에 참전한 전라도관군의 군량과 군사를 지원하는 책임까지 맡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행주성대첩에서 문영개 등이 공을 세웠다는 기록도<sup>21)</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이해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조정에서 문위세를 호남운량관으로 임명한 배경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전라좌의병의 양향관으로서 전라좌도 연해지역으로부터 멀리 영남지방까지 의병의 군량을 조달한 그의 역량이 조정에 알려졌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어떠한 그의 의병활동은 전라좌의병의 본진과 분리된 가운데 후방에서 군량을 募聚한 다음, 이를 전방에 공급하는 義毅活動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1593년 이후 전쟁이 장기화하고 전국에 흉년이 들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면서 문위세의 의곡지원활동 역시 그 만큼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그는 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전투가 있었을 때, 당시 도원수로 승진한 권율의 요청에 따라 선박에 군량을 실어 영남지방에 공급한 사실을 『풍암실기』가 전해준다.<sup>22)</sup> 순천 왜교촌에서 배를 띄운 뒤 천신만고 끝에 영남지방에 군량을 수송하였다고 한다. 또한 군량을 전달하고 돌아가는 길에 하동에서 조선인 포로 2백 여명을 구출하였으며, 육해상의 여러 부대에 군량을 공급한 것이 1594년 3월까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sup>23)</sup> 즉 1594년 4월, 조정에서 전국의 의병을 모두 해산시키고 김덕령 휘하의 1군만을 남기는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문위세의 의병활동은 계속된 셈이었다. 따라서 약 2년 6개월 간에 걸친 의병활동이 끝난 뒤 62세가 되던 해인 1595년, 조정으로부터 그에게 용

---

除縣監”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21) 『풍암실기』 권3, 「임진창의일기」 기사 2월 27일.

22) 위의 일기, 6월 6일.

23) 같은 일기, 갑오년 기사.

담현령의 관직이 제수되었다. 이것은 그의 의병활동을 통하여 군공을 평가한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문위세가 용담현령으로 있던 기간은 전후 5년 간이었다. 그가 노환으로 현령직을 사임하고 향리에 돌아온 것이 1599년(선조 32)이었으니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정유재란을 겪었던 것이다. 정유재란은 풍신수길의 작전명령에 따라 호남지방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전쟁이었고, 그 전란 피해 또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또한 1597년 8월, 남원성과 전주성이 모두 함락된 직후 그 인접지역이었던 용담고을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 때 현령은 지난날의 의병부장 이충량과 장남 문원개를 위시한 子姪들 및 사위 백민수 등에게 명하여 의병을 규합한 다음 민관연합의 방위체제를 구축하였다. 동원된 전병력을 3개조로 분할편성한 뒤 그 1대는 남원의 적을 추격케 하고, 다른 1대는 영남으로 통하는 요충지 良峙를 방어케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대는 용담읍성을 방위케 함으로써 고을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었다.<sup>24)</sup> 따라서 이듬해 1598년 일본군이 순천 왜교성에서 마지막 철병하기까지 용담고을이 무사히 지켜진 것은 현령 문위세와 휘하 의병의 활약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그의 이 같은 업적은 임란 7년 전쟁이 끝난 1600년에 재평가되어 선조로부터 3품관인 파주목사의 직첩이 내려질 만큼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노병으로 부임하지 못한 채 그 해 3월,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한편 임진년 7월, 보성관문에서 출진한 전라좌의병이 영남지방에 진군한 이후 성주·개령수복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 보성 향리에 머물고 있던 죽천은 깊어진 患候에도 불구하고 장남 朴根孝·차남 문위세 등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량조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후 1594년 정월, 전주에 주둔해 있던 광해군에게 장문의 상소를 올림으로써

24) “即日與副將李忠良 召募義士時 子元凱與四弟 及外甥白民秀等 皆收兵來會 凡一千五百也而已 於是三分其兵 以爲攻守之計 一以爲良峙防守軍 以遏嶺南後來之賊 一以爲龍潭守城軍 出沒四境 而以遏犯境之賊 一以爲移郡兵 追擊南原賊 時倭兵破南原 直上全州矣”(『풍암실기』 권3, 「임진창의일기」 정유 8월 15일)



전란극복의 방책을 조목조목 개선, 이를 모두 받아들이게 하였으니 이 또한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특히 그는 전란극복의 방책을 개선한 가운데 당시의 민생실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흉년이 거듭 들어 곡식의 수확이 전에 비해 반이나 줄었는데 徭役의 무거운 전보다 배나 더해 해를 넘기기도 전에 집안에 모든 것이 텅텅 비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보는 바에 의하면 朝夕의 먹을 것이 없는 자가 반이 넘는 데 영남지방에 식량 운반하는 값과 수군의 군량을 대는 것이 매월 7,8석이나 되어 그것들을 내고 나면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으므로 도망가고 遊離된 자가 서로 잇달아 촌락은 모두 비어가고, 길바닥에는 굶어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어 그 참혹함이 차마 눈뜨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살아 남은 백성이 있다 한들 무엇으로 먹을 것이며, 방어하는 군사들은 무엇으로 군량을 할 것이며, 백성이 어떻게 백성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가 어찌 나라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sup>25)</sup>

라고 통탄하였다. 여기에서 죽천은 우선 백성들을 慰撫하고 流民을 불러모아 농사를 짓게 하므로써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急善策임을 강조하였으니, 그의 憂國衷情을 절절이 드러낸 상소문이었다고 하겠다.

그 후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당시 죽천의 年齒는 72세의 고령에 달해 있었다. 일본군의 재침이 감행된 직후 정유년 8월 중순, 남원·전주성이 함락된 이후 호남지방의 전쟁피해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실정이었다. 이 때 박광전은 문인 안방준과 함께 天鳳山에 들어가 피란중에 있었는데 생원 朴士吉 등이 찾아와 죽천으로 하여금 다시 의병운동에 앞장서줄 것을 애원하였다. 극도로 혼란에 빠진 민심을 바로잡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적과 싸우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도 역시 죽천이었다. 따라서 이 때 그는, “나라는 나날이 급해지고 내 병은 나날이 깊어지니 이제 남은 것은 죽음이 있을 뿐이라. 다만 한 가닥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이라도 저 倭奴들과 같은 하늘

25) 『亂中雜錄』 卷3, 甲午年 正月 2日.

말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여 마침내 再倡舉兵을 다짐하였다. 鄉隣의 장정들과 산 속에 피란중인 男丁들을 모아 대오를 갖춘 뒤 前判官 宋弘烈을 義兵副將으로 삼고 次子 朴根梯를 종사관으로, 朴士吉·朴勳 등을 선봉으로 삼아 토적활동을 개시하였다. 당시 전라도 전역이 적병들의 소굴을 이룬 상황에서 가까운 同福의 적진을 기습공격한 후 赤壁戰鬪에서 적을 격파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sup>26)</sup> 그러나 의병활동을 재개한 직후 정유년 10월, 母后山에 피란중이던 부인 남평문씨의 상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11월 18일에는 죽천 자신이 진중에서 순절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노령에 더없이 깊어진 신병을 앓는 가운데 이어진 의병활동의 결과는 끝내 그를 의병전쟁의 현장에서 숨지게 하였던 것이다. 평소에 實踐躬行의 학문정신을 강조해온 그가 국난을 당한 현실에서 최후까지 몸소 실천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牛山 安邦俊이 본 성리학자 竹川에 관한 글의 일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평생 가까이에서 죽천과 함께 살아온 문인 안방준이 쓴 죽천의 행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근래에 호남에서 학문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은 金河西·奇高峰·李一齋·柳眉巖 그리고 우리 선생 뿐이다. 그 중에 하서의 학문과 操行, 節義와 문장은 높아서 따를 수가 없고, 고봉의 명쾌한 논리나 일재의 剛毅不屈함이 나 미암의 博識多聞함 또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학문을 익혀 이를 실천함에 있어서 독실함을 논하자면 위의 三賢과 우리 선생을 견주었을 때 누가 더 위인 지 가리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우리 선생의 경우, 이름과 지위가 미치지 않아 세상에 그 진면을 아는 자 없으니 이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는 자에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이니 俗人들과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sup>27)</sup>

윗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죽천의 의병운동

26) 『朴氏七賢舉義錄』(1857, 朴重洪 刊), 「竹川先生事蹟」

27) 『隱峰全書』 권4, 「竹川朴先生行狀」

이 바로 그의 도학적 실천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의병정신의 본질이 곧 儒者의 충의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의병의 戰力 역시 군사기술의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道學의 학문정신을 통한 정신 전력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IV. 丙子倡義와 박씨일문의 의병운동

위에서 우리는 박광전 일가의 의병운동 및 일본군의 再侵과 더불어 다시 시작된 죽천의 丁酉再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그의 의병운동을 3대에 걸쳐 이어간 珍原朴氏 六賢의 舉義實績을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이것은 임진왜란으로부터 병자호란시까지 죽천을 위시한 한 父子祖孫 및 兄弟叔侄이 엮힌 四世七賢의 의병운동을 기록한 『朴氏七賢舉義錄』에<sup>28)</sup> 의거한 것이다. 즉 임진왜란시에는 죽천과 그의 장남인 晚圃 朴根孝, 차남인 玉峴 朴根梯 등 3현이 의병운동에 참가하여 세칭 ‘三父子倡義’란 말을 들었다. 병자호란시에는 죽천의 손자이자 晚圃의 장남인 春秀와 차남인 春長, 그리고 春長의 아들이자 죽천의 증손인 震亨과 죽천의 손자이자 玉峴의 아들인 春豪 등 4현이 의병운동에 뛰어들어 이른바 一門七賢의 舉義가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는 『舉義錄』의 내용을 토대로 죽천의 장남 박근효와 차남 박근제의 행적을 살펴본 다음, 이들의 뒤를 이어 향리 보성에서 이루어진 珍原朴氏一門의 丙子倡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병자호란시 경기 이남에서 이루어진 의병운동이란 실

28) 『朴氏七賢舉義錄』(이하『舉義錄』으로 표기함)은 1857년(철종 8)에 간행된 1책 1권의 목판본으로 현재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였다. 앞부분에 金履安의 서문(1666, 현종 7년찬)과 宋煥箕의 서문, 그리고 후손 朴重洪의 발문이 있다. 뒷부분에는 박광전의 族叔이 되는 朴元陶·潘哲 부자의 행적을 기록한 淸溪公行狀과 岐陽公行狀이 붙어 있다.

전의 군사활동이 없었다는 점, 즉 청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길목에 있었던 평안도·황해도·경기도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의병전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 전라도의 의병운동을 검토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擧義過程과 관계자들의 행동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서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죽천의 후에 4현의 병자창의 또한 자연히 위의 『擧義錄』에 나타난 행적을 간략히 정리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1592년 7월 보성에서 죽천과 함께 의병운동을 시작했던 朴根孝. 그의 자는 立之, 호는 晚圃이니 1550년(명종 5) 죽천의 장자로 출생, 일찍부터 부친의 敎誨와 타고난 자질이 학문에 밝아 늘 가까이 하게 되어 1591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성균관에 적을 두고 학문을 익힐 때 우계 성혼과 율곡 이이의 문하에 출입하며 특히 성리학의 깊은 경지에 이르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부친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후 전라좌의병의 참모관으로 출전, 영남지방에 진군한 뒤 개령과 성주성전투에서 대첩을 거듭으로써 전란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 지역을 수복하는 큰 전공을 세웠다. 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전투시에는 副將 張潤과 함께 전라좌의병 군사 3백을 인솔하여 진주성에 입성, 무관이었던 장운은 성중에서 의병을 지휘하고 문관이었던 그는 군량공급을 위해 외원의 임무를 띠고 나와 있었다. 6월 29일 진주성이 함락되고 성중의 의병지도층이 모두 전사하였을 때 그는 미처 還陣하지 못해 그들과 죽음을 함께 하지 못했으나, 이를 평생 한탄했던 그는 軍功으로 그에게 내려진 일체의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정유재란시 역시 부친을 따라 거듭 의병활동에 임하였으며, 그 때 역시 장수현감직이 除授되었으나 여전히 나아가지 않고 자연과 독서를 벗삼아 생을 마쳤다. 1607년(선조 40) 58세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 조정으로부터 司憲府 執義의 직첩이 내려졌다.<sup>29)</sup>

박근효의 아우 朴根悌의 자는 立甫, 호는 玉峴이니 1560년(명종 15) 죽천의 차남으로 출생, 家學으로 일찍부터 성리학을 익혀 南州高士란 칭호

29) 위의 책, 「晚圃先生事蹟」 및 「晚圃公行狀」

를 들었다. 33세가 되던 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부친의 명에 따라 형 만포공과 함께 전라좌의병진에 종군, 군공으로 참봉직이 제수되었으나 사직 상소를 올려 나아가지 않았다. 정유재란시에 부친 죽천선생께서 노환에도 불구하고 의병장에 추대되자 종사관으로 참전, 정유년 11월 18일 부친이 진중에서 순절할 때까지 그를 그림자처럼 수행하면서 충효를 겸하여 실천하였다. 1629년(인조 7)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조용한 곳에 隱居하며 高士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sup>30)</sup>

박근효의 장남이었던 朴春秀의 자는 彦實, 호는 我誰이며 1590년(선조 23)에 출생하였다. 가학으로 성리학의 깊은 경지에 이르렀으며 특히 문장이 뛰어나 1627년(인조 5) 진사시에 합격한 후 널리 문명을 떨쳤다. 文谷 金壽恒의 문하에 從遊하며 당대의 名儒들과 교유하였으며 학행으로 宗廟 署 直長·連原察訪 등의 관직이 제수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시 우산 안방준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켜 그를 의병장으로 추대한 뒤 종사관으로 여산까지 출정하였으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아우 동계공 춘장·조카 요천공 진형과 함께 격문을 돌려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군사 3백여 명을 모아 의병조직을 갖춘 다음 의병장으로 추대된 그는 곧바로 출진하여 여산까지 진군하였다. 이 때 각 고을의 군사들이 이곳에 총집결, 鄭弘溟을 의병대장으로 하고 옥곡현감 李興淳을 종사관으로 하는 의병연합전선을 이루게 되니 그가 바로 ‘寶城募義都有司朴春秀’의 직함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호남의병 전군이 청주까지 북상하였을 때, 이미 남한산성의 굴욕으로 전쟁이 끝났으니 모두 罷兵하라는 비보에 접하여 大聲號哭과 함께 남하하기에 이르렀다. 병자창의 이후 그는 1641년(인조 19) 52세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오직 후진양성에 전력하였다.<sup>31)</sup>

박근효의 차남이었던 朴春長의 자는 彦承, 호는 東溪이며 1595년(선조 28)에 출생하였다. 어려서 몸이 약하여 만학으로 학문에 접하였으나 鄉試

30) 위의 책, 「玉峴公事蹟」

31) 위의 책, 「我誰公事蹟」

에 나아가 일거에 장원을 차지할 만큼 출중한 문명을 떨쳤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형 이수공이 먼저 의병을 모집하여 복상한 뒤 조카 진형과 함께 항병 수백을 모아 우산 안방준 휘하의 의병진에 들어갔다. 대대로 충의를 지켜온 家統을 잇기 위해 결사항전을 맹서한 후 여산까지 복상하였다가 화의의 성립으로 파병귀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1645년(인조 23)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학행과 行誼에 있어서 鄉中에 그 이름이 자자하였으니 鄭佶·任喜·崔繼憲·金銑·李懋臣과 더불어 세칭 六賢으로 불리웠다. 1664년(현종 5) 70세의 향년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72제자를 두었다고 기록될 만큼, 그 門庭에 글 읽는 선비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sup>32)</sup>

박근제의 아들이었던 朴春豪의 자는 偉元, 호는 海月堂이다. 일찍부터 科擧之學을 버리고 성리학에 침잠하여 爲己之學에 전념하였다. 병자호란 시 종형 이수공을 좇아 의병을 일으킨 후 우산 안방준 휘하의 義陣에 들어가 糧餉官으로 활동하였다. 열읍에 격문을 돌려 義穀을 모은 다음 여산까지 진군하였다가 無爲로 그쳐 귀가하였다. 향리에 돌아온 뒤 軍功으로 察訪職이 내려졌으나 관직에 뜻이 없어 평생을 두문불출하며 一處士로 생을 마쳤다.<sup>33)</sup>

박근효의 손자 朴震亨의 자는 晉叔, 호는 蓼川이니 1611년(광해 3) 春秀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628년 18세 때부터 우암 송시열의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을 깊이 궁구한 후 일가견을 이루어 주위의 칭송을 들었다. 병자호란시 부친 이수공이 의병을 일으켜 먼저 복상한 뒤 숙부 동계공과 함께 따로 우산 안방준의 義軍陣에 종군하였다가 역시 여산에 이르러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귀환하였다. 沙溪 金長生으로부터 ‘大明處士’란 칭호를 듣고 1672년(현종 13)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sup>34)</sup>

32) 위의 책, 「東溪公事蹟」

33) 위의 책, 「海月堂公事蹟」

34) 위의 책, 「蓼川公事蹟」

## V. 맺음말

앞에서 우리는 죽천 박광전의 창의과정과 전라좌의병의 성군 및 활동·전과에 이르기까지 소상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죽천의 丁酉再倡과 그 일가친척의 활동상은 물론, 병자호란시까지 4대에 걸쳐 계속된 박씨 일문의 동향에 대하여도 아울러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확인된 몇 가지 사실을 요약해보기로 한다.

죽천 박광전을 중심으로 임계영·문위세·김익복 등이 의병지도층을 형성한 전라좌의병의 學義理念을 보면, 평소 군사활동에 미숙한 선비 유생층으로서 의병운동에 앞장선 까닭이 관군과 일반백성들에게 극난극복의 의지를 감발시키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민족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된 현실에서 평소에 그들이 닦아온 학문정신을 직접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즉 죽천을 위시한 의병지도층의 인사들이 군사에 밝지 못한 유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들은 의병정신의 본질이 곧 儒者의 충의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의병의 戰力 역시 군사기술의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道學의 학문정신이 발현된 정신전력에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그리고 전라좌의병의 활동목표를 보면, 그들의 격문에 나타난 대로 제 1차 금산성전투 이후 도내에 방위군이 전무한 실정에서 국가의 중흥기지인 호남지방의 자위를 위하여 거병하였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좌의병의 활동과정에서 보았듯이 의병전쟁 과정에서 영남지방에 진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악전고투 끝에 개령 성주지방을 수복하는 전공을 세웠을 뿐 아니라 영남지방에서의 전세를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한편 박광전 일가의 의병운동이 시작된 것은 죽천 자신이 임진년 신병중에 67세의 노령으로 전라좌의병을 일으키면서부터이다. 그는 장남 박근

효와 처남 문위세를 각각 전라좌의병의 참모관과 糧餉官으로 출전시킨 후 자신은 보성 향리에 남아 군량조달을 위한 후방지원활동을 폈다. 처남 문위세의 경우는 앞에서 밝힌대로 정유재란시까지 독자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하면서 각처에서 전공을 세웠으며, 차남 박근제는 1597년 죽천의 丁酉再倡을 도와 종사관으로 활약하면서 부친의 최후까지 의병전쟁을 함께 했었다.

따라서 박광전의 일가친척이 함께 펼친 임란 의병운동은 임진왜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박씨칠현거의록』이 말하듯이 병자호란 때까지 계속되었다. 즉 父子祖孫 및 兄弟叔侄이 이어간 四世七賢의 의병운동은 임진왜란시의 죽천 ‘三父子倡義’에 이어서 병자호란시의 박근효의 장·차남인 春秀·春長과 박근제의 아들인 春豪, 그리고 春長의 아들인 震亨에 이르기까지 모두 진원박씨 7현의 의병운동으로 기록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宣祖實錄』

趙慶男, 『亂中雜錄』

吳希文, 『瑣尾錄』

權慄, 『晚翠堂實紀』

崔慶會, 『日休堂實紀』

安邦俊, 『隱峰全書』

朴重洪 刊, 『朴氏七賢學義錄』(1857)

『宣廟中興誌』, 규장각도서(한국본)

文緯世, 『풍암문선생실기』(국역), 楓菴先生遺稿發刊委員會, 1995



*Abstract*

Loyal troop's activities of Park Kwang Jeon and  
his family

Jo, Won-rae

This is to investigate the life to Park Kwang Jeon(朴光前), a teacher of Kwang Hye prince, and is to trace the loyal troop's activities of his family. The Chon-Ra Left loyal troop had the group who was mainly made up of his family such as his two sons, his brother-in-law, his disciples as well as himself. Their activities had lasted for five years under the banner of loyal troops. They had Im Kye Young in an eastern area as their director and mobilized Confucian scholars. Park Kwang Jeon recruited soldiers, collected provisions, and supported the military headquarters in their rear. But he didn't attend direct military activities because of the old age, 67, and an illness.

He, a disciple of Lee Hwang(李滉), passed a Jin-Sa examination and served as Cham-bong in Kyeng Gee Jeon(慶基殿) on the recommendation of Yu Hee Choon, provincial governor in Chon-Ra Do. After passing Princess teacher, Sa Heon Boo Gam-Chal(司憲附 監察), Ham Yel Hyun-Gam(咸悅縣監), Heo Duk Hyen-Gam(懷德縣監) and so on, he retired from the government position, and then he recruited soldiers in Bo Seong when Japanese military invaded. His consolidated loyal troops who were made up of volunteers as well as the military leaders like Park Geun Hyo, his first son, Moon Wyi Se, his brother-in-law, Jeng Sa Je(鄭思悌) of his disciple, defeated the enemy at the Kye Ryeong

battle in Kyeong-Sang Do, and then recovered Seong Ju castle. It turned the defensive into the offensive in Young Nam area. Their military activity kept on until Byeong Ja Ho-Ran(丙子胡亂). Park's family Chil Hyun Rok(朴氏七賢舉義錄) showed us that the loyal troop began by Park Kwang Jeon. In relation to his family's military activities, what we pay attention to is that their goal is based on not only a military achievement but also ethical activism. Their basic spirit came from the loyalty of a Confucian.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ier fighting strength is not a physical power but mental one based on a learning spirit.

**Keyword**

Park Kwang Jeon(朴光前), Kwang Hye prince(光海君), loyal troop's activities(의병활동), Im Kye Young(임계영), Moon Wyi Se(문의세), Chon-Ra Left loyal troop(전라좌 의병), Jeng Sa Je(鄭思悌), Yu Hee Choon(유희춘), Lee Hwang(李滉), Byeong Ja Ho-Ran(丙子胡亂), Park's family Chil Hyun Rok(朴氏七賢舉義錄),

## 朴光前의 擧義와 그 一家의 의병운동

趙 潏 來

이 논문은 光海君의 스승인 竹川 朴光前의 삶과 그 일가의 義兵活動의 자취를 연구·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죽친 朴光前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그의 임계영·문위세·김익복 등의 一家를 중심으로 형성한 全羅좌의병은 5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들은 임계영을 의병대장으로 추천하여 全羅좌의병의 지휘권을 맡게 하고,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의병을 모집하였다. 朴光前은 보성 향리에 남아, 의병 모집과 군광조달 등의 후방지원활동을 폈다.

그러나 그는 당시 67세의 노령에 신병까지 겹쳐 있어 직접 군사를 지휘할 수 없었으므로 그리고 장남 根孝·차남 문위세·문인 鄭思悌를 주축으로 하여 탄탄한 의병조직을 갖추게 하는 한편, 문인 안방준을 兩湖都體察使 鄭徹의 군중에 파견하여 연락참모의 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조정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케 하였다.

李滉의 문하에서 학문적 영향을 받은 朴光前은 진사시에 합격한 다음, 柳希春의 추천으로 慶基殿 참봉이 除授되었고 이어서 獻陵參奉을 지낸 뒤 관직을 떠나 귀향하였다. 그 후 氷庫別坐에 다시 기용되었다가 1581년(선조 14) 광해군의 潛邸時 王子師傅를 지낸 뒤 司憲府 監察·咸悅縣監·懷德縣監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장남 根孝·차남 문위세·문인 鄭思悌를 주축으로 하여 보성에서 의병을 조직 하였다. 그들은 개령·성주지방을 수복하는 전공을 세웠을 뿐 아니라 영남지방에서의 전세를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따라서 박광전의 일가친척이 함께 펼친 임란 의병운동은 임진왜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朴氏七賢舉義錄』이 말하듯이 丙子胡亂 때까지 계속되었다. 박광전 일가의 의병운동이 시작된 것은 죽천 자신이 임진년 신병 중에 67세의 노령으로 전라좌의병을 일으키면서부터이다. 그의 일가의 의병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그들은 의병정신의 본질이 곧 儒者의 충의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의병의 戰力 역시 군사기술의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道學의 학문정신이 발현된 정신전력에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주제어

光海君, 竹川 朴光前, 義兵活動, 임계영, 문위세, 김익복, 전라좌의병, 柳希春, 朴氏七賢舉義錄, 壬辰倭亂, 丙子胡亂